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조의연* 조숙희**
(동국대학교_서울·신한대학교)

1. 들어가며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은 오역 논쟁에서부터 다양한 번역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평가와 학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간 최대의 관심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 *The Vegetarian*의 번역연구의 범위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개정 또는 재번역에 대한 논의이다.

이인규(2017: 195)는 스미스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은, 비록 탁월한 상

* 조의연은 주저자이며 **조숙희는 교신저자이다. 도움말을 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발견된 오류는 필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1) 이형진(2018)과 이상빈(2018)에 따르면 2016년 맨부커 상 수상 이후 약 2년에 걸쳐 *The Vegetarian*에 대한 번역연구는 14편에서 16편에 이른다.

상력과 글쓰기 능력에서 비롯된 뛰어난 가독성이 버티고 있지만, ‘번역자의 무덤’인 오역에 관한 한 번역으로서의 품질과 신뢰성이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번역”이라고 평하면서 *The Vegetarian*의 ‘개정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상빈(2018)은 낮설게 번역하기 또는 혼종성의 문화번역의 한 형태를 한국문학의 번역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문학적 가치에서 성공을 거둔 “*The Vegetarian*이 테보라 스미스에 의해서 재번역 되는 것 또한 한국번역문학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번역가 자신도 ‘우리가 번역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스미스 2018)을 통해 재번역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자신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에 쏟아진 신랄한 비판과 비평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번역관 및 *The Vegetarian*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미스(2018)는 ‘재개정’ 및 ‘다시 번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더 나은 방식으로(의) 향상’이 아닌 ‘다르게 실패’하기로 표현되고 있다. 아래의 인용은 이를 보여준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채식주의자』를 다시 번역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강 또는 배수아의 또 다른 작품을 번역할 때마다 그들의 정신, 세계, 언어와 맺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 는 점에서,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은 방식’이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표현을 **다르게 실패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조는 필자의 것임).

스미스는 재번역을 왜 ‘다르게 실패하기’로 말하는 것일까? 자신의 영어번역 *The Vegetarian*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뛰어난 작가(한강)의 작품(『채식주의자』)를 질적으로는 충분히 충실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스미스에게 번역은 왜 실패이고 재번역하더라도 그것은 왜 ‘다르게 실패’한 것일까? 우리는 이 논문에서 그녀의 번역 및 재번역에 대한 관점을 논의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구할 것이다. 아울러 재번역의 두 가지 중심 패러다임인 ‘결여-향상’ 패러다임과 ‘해석-다양성’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국내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거나 관심을 끈 스미스의 생략과 압축 그리고 의미변형

의 번역 부분을 재분석할 것이다. 2장은 독자 수용적 창조적 다시쓰기인 스미스의 번역관과 ‘다르게 실패하기’로서의 재번역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다룰 것이며 3장은 재번역의 두 가지 가설,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삭제 및 변형으로 논란이 되는 스미스의 영어번역의 주요 부분을 분석할 것이다. 4장은 결론이다.

2. 번역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접근

2.1 독자 수용적-창조적 다시쓰기 번역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대체로 영미 독자의 수용성에 중점을 둔 ‘창조적 다시쓰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의 독자 수용적 번역 방식을 보면, 그가 유창성(fluency)의 영미 번역규범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사회에서 번역의 접근법은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영속화’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언급한 스미스는 전자보다 후자의 전통을 따르고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은 이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저는 영문학적 언어 관습에서 너무 벗어날 때 (한강의) 그 글쓰기가 갖는 전복적인 힘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²⁾

『채식주의자』 작품이 갖는 문학적 특성, 미학적 특성에 적합한 번역 방식은 유창성에 기반한 번역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 글쓰기로 *The Vegetarian*을 자신의 영어 첫 번역으로 이루어낸 스미스는 자신의 번역이 “한편의 훌륭한 영문학 작품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실제적으로 김영신(2016)과 마승혜(2017)의 *The Vegetarian*의 번역에 대한

2)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스미스가 ‘문화 제국주의의 영속화’에 부합하는 번역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성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주 번역규범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는 스미스가 영미 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승혜는 스미스가 번역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법 및 어휘의 응집장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아래의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접속어 ‘right then’의 첨가로 인하여 영혜의 남편이 느끼는 앞 뒤 내용이 더욱더 결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ST: 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람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TT: The whole affair made my fresh crawl. It just didn't seem real. Right then, thinking about my wife didn't cause me shock or confusion so much as an intense feeling of disgust.

이뿐 아니라, 위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징그러웠다’는 표현을 관용구 ‘make someone’s fresh crawl’를 써서 표현하고 ‘혐오감’을 ‘an intense feeling of disgust’로 번역하여 느낌의 표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³⁾ 이러한 이유로 맨부커 상의 심사위원장 보이드 톤킨(Boyd Tonkin)은 “이 기묘하고도 훌륭한 작품(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번역가 스미스에 의해서) 영어로 더없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다”라고 호평하고 있다(Flood 2016.5.16.).⁴⁾

스미스에게 번역은 창조적 다시쓰기이며 이는 그녀의 언급에서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가 번역한 영역본 채식주의자가 물론 한국어 원작과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전적으로 옳습니다. ‘창조적’이지 않은 번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그의 번역 *The Vegetarian*이 원작과 다른 작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작품의 구조, 플롯, 주제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 언어, 어조 등이 다른 것을 말한다. 즉, 창조적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은 미시적 단위에서 원문

3) 이와 유사한 더 많은 예는 마승혜(2017)를 참고할 것.

4) 이인규(2017: 174)에서 재인용되었다.

의 어휘 또는 구문에 얽매이지 않고 원문의 생략, 압축 또는 의미 변형이 가해진 번역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인용은 주인공 영혜가 그녀의 꿈을 이야기 하는 장면의 첫 머리에 해당된다.

다시 꿈을 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그럼 그걸 감추어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

영혜는 꿈에서 벌어진 기억이 가물가물한 살해의 장면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이를 독백하고 있다. 죽인 사람을 놓고, 살해된 사람을 놓고 그게 나인지 너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그리고 살해의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장면을 애쓰며 기억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장면을 스미스는 과감히 생략하고 압축하여 아래와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Dreams of murder.

Murderer or murdered. ...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 certainty becomes impossible.

원작에서 ‘그걸 감쪽같이 숨겨 뒀는데’ ‘그걸 감추어 준 사람은 누굴까’ 등 살해의 도구에 대한 영혜의 독백은 완전히 생략되었으며 ‘죽인 사람이 나라면’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분명치 않다는 독백들은 이의 함축의미인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변환 동사 ‘bleed’는 폭력성인 ‘피’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히 번역가로서 탁월한 영어 어휘 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략과 압축 그리고 번역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발휘되어 기표적으로는 원문과 벗어나 있는 이러한 번역을 두고 원문의 훼손 또는 오역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스미스에게 이러한 변화는 원작에 대한 ‘배반’은 아니다.⁵⁾ 이러한 변화는 원작에

5) 이인규(2017: 185)는 번역가 이희재(2009)의 비유를 빌려 이렇게 원문에서 지나치게

대한 배반도 아닐뿐더러 창조적 번역 글쓰기이다.⁶⁾

2.2 ‘다르게 실패하기’의 재번역⁷⁾

스미스는 번역을 외국어 습득에 비유하며 번역에 ‘완성’은 없으며 번역은 따라서 ‘절대적’일 수 없다고 본다.⁸⁾ 번역은 원작의 해석에 의존하며 해석은 특정한 맥락-시간, 장소, 사람-을 달리함에 따라 달리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도 절대적일 수 없다. 해석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해석을 표현하는 방식도 특정한 맥락 또는 사회 문화적 조건을 달리함에 따라 달리 발생한다. 번역가는 문학작품 원작에 대한 해석자이며 동시에 원작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목표언어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제 2의 작가이다.

스미스에게 2018년은『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지 4년이 지난 시간이며 4년 전 이해하지 못한 것을 2018년에는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당시 스미스의 한국어 장악력 정도에서 비롯된 ‘실수’를 포함하여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해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에 출판된 *The Vegetarian*과는 다른 번역이 요구될 수 있고 결국『채식주의자』는 재번역의 대상이 된다.

벗어나 있는 번역을 ‘(초)고공 비행 번역’이라고 부르며 “원문을 잘못 해석한 오역의 결과인지 아니면 번역자의 비상(비상)에서 나온 창의적 변형의 결과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인규가 언급한 이와 같은 생략과 압축의 예는 그의 논문 185쪽의 예시 3)에서도 관찰된다.

- 6) 스미스(2018: 1)는 원작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데 동원되는 이러한 “차이, 변화, 해석은 비단 완벽하게 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충실함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들이자 충실한 번역의 핵심”이라고 까지 말한다.
- 7) 스미스가 재번역을 ‘다르게 실패하기’로 규정하며 사용된 ‘실패’는 작가 줄리안 반즈(Julian Barnes)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즈에게 고전 텍스트의 새로운 번역은 ‘다시 실패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실패하기’이다.
- 8) 이러한 관점은 문학텍스트를 완결된 유기체로 보지 않는 수용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체험주의 인지미론에서 볼 때, 언어 기표의 기의는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표를 읽는 독자의 인지적 환경에 따라 문학작품의 해석은 달라진다. 즉, 문학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의 경험구조는 시간, 공간, 사람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가가 시간을 달리함에 따라 문학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게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더 나은 방식’으로의 실패하기’와 ‘다르게 실패하기’로서의 재번역은 번역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기존 번역이 무언가를 결여, 결핍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여 패러다임(Paradigm of Lack)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기존의 번역과는 다른 텍스트 읽기, 다양한 해석이 발생한다는 다양성 패러다임(Paradigm of Multiplicit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자신의 번역 *The Vegetarian*을 출판한 이후 ‘실수’를 넘어서 그 당시와 다르게 원작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된 것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표와 기의의 지연 관계로 인한 의미의 차이, 기의의 비결정성으로 인한 기표 표상의 불완전성, 여기에 더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 불가능성 등이 시간과 맥락을 달리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다르게 해석된다(조의연 1996). 번역가는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된 것을 또 다른 번역으로 표상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번역과는 다른 다양한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번역은 분명 기존의 번역을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번역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스미스에게 기존의 번역,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재번역은 서로 다른 다양한 번역들이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는 번역이므로 첫 번역과는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곧 재번역이다.

굳이 스미스가 재번역을 ‘다르게 시도하기’로 보기보다는 ‘다르게 실패하기’로 보는 것은 어떠한 번역도 완성된 번역은 없다는 그의 인식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든 번역은 비평의 대상이 된다. 원본중심주의의 번역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번역비평가에게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이인규 2017 참조). 한국과 영국의 서로 다른 번역규범의 차이를 무시한 번역 비평 하에서 그 어떤 번역도 ‘번역불가능성’ 또는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을 내재한 번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패’라고 보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결점 또는 무엇인가를 결여한

9) 재번역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재번역 패러다임은 마사르디에-케니(Massardier-Kenny 2015)에서 참고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어 용어는 유한내(2017a)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전자를 ‘결여-향상’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후자를 ‘해석-다양성’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쓸 것이다. 두가지 재번역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3장을 참조하기 바람.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재번역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은 원작에 비추어 볼 때 열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며 이는 곧 실패로 평가될 것이다. 아니면 그 어떤 번역도 절대적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번역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비추어 번역을 ‘실패하기’와 동일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3. 재번역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3장에서 우리는 『채식주의자』 1부에 이탤릭체로 제시된 영혜의 꿈의 독백과 기르던 개(흰둥이)의 죽음을 회상하는 영혜의 독백을 중심으로 스미스의 삭제, 압축 그리고 변형의 번역을 서로 다른 재번역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혀질 수도 있지만, 한강(2016)에 따르면,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주인공 영혜를 통해 인간은 또한 이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항의하는 존재임을 보이는 소설이다. 그 폭력성은 소설의 1부에서 영혜의 독백에서 드러나며 동시에 이로부터 탈주하려고 지극히 몸부림치는 목소리가 울리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저항의 변주가 작가의 내면의 목소리이며 동시에 주인공 영혜의 내면의 목소리로 한강 특유의 이탤릭체 문체로 기표화되고 있다.¹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이탤릭체로 표상된 영혜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결여-향상’의 틀에서 그리고 ‘해석-다양성’의 틀에서 스미스의 현재의 번역을 논의할 것이다.

3.1 결여-향상 재번역의 틀

전술한 바와 같이 스미스에게 *The Vegetarian*은 『채식주의자』에 삭제, 압축, 변형 등을 통한 창조적 다시쓰기의 번역이다. 그러나 원본중심주의 번역비평가들에게 이러한 번역은 원문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 원문의 ‘섬세한 내용과 결’이 잘 옮겨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인규 2017: 196). 원문의 일부가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압축, 변형된 번역은 원문의 섬세한 내용과 결이 결여된 것으로 재번역에서 향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 텍스트(원작)은 안정

10) 이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조의연 조속회(2017)을 참조할 것.

적이며 온전한 의미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번역은 이 진실(truth)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첫 번째 번역들은 향상되어야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본다 (Massardier-Kenny 2015). 그리고 재번역은 이러한 것을 원작의 메시지에 이르도록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는 이제 결여-향상 재번역의 틀에서 이루어진 스미스의 번역과 비평을 재해석할 것이다.

1부에서 주인공 영혜는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죽었는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소름끼친 그 느낌만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래서였는지 ‘칼질’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피’의 끈적끈적한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을 영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에게 도마에 칼질을 하는 것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웬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 밖엔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굴곤 했지 그렇다고 어제 꿈에 죽거나 죽인 사람이 얼마나 언니였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 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꺾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스미스의 번역에서는 꿈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인간의 폭력성을 비유해주는 ‘칼질’에 대한 영혜의 이야기는 삭제되고 (영혜의) 두려운 느낌만이 아래와 같이 번역되고 있다.

Intolerable loathing, so long suppressed. Loathing I've always tried to mask with affection. But now the mask is coming off. That shuddering, sordid, gruesome, brutal feeling. Nothing else remains. Murderer or murdered, experience too vivid to not be real. Determined, disillusioned. Lukewarm, like slightly cooled blood.

원문에서 삭제된 부분을 밑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에게 도마에 칼질을 하는 것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웬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 봐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굴곤 했지. 그렇다고 어제 꿈에 죽거나 죽인 사람이 얼마나 언니였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 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꺾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이 부분의 삭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도마에 칼질’ ‘언니와 엄마’는 여성주의의 의미망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칼질의 대상에 대한 폭력성, 이로 인한 두려움의 문화적 의미를 상실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상실한 번역텍스트는 ST의 독자들이 원본에서 경험한 영혜의 섬세한 목소리를 TT 독자들에게 차단시키고 있는 결함을 가진 번역텍스트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삭제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몽환적 기억이 불분명한 살해 경험을 서술하는 영혜의 꿈의 독백 초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아래의 예시가 이를 보여 준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번역본에 삭제되었다.

다시 꿈을 꿨어.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그럼 그걸 감추어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

Dreams of murder.

Murderer or murdered. ...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 certainty becomes impossible.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이러한 삭제는 원작의 1인칭 시점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기도 하였다(이지민 2018).¹¹⁾ 원작과 달리 이렇게 읽히는 번

11) 이지민의 분석이 일면 타당하지만 번역텍스트의 독자들은 꿈의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서술을 전지적 3인칭 화자의 목소리가 아닌 영혜의 목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이 곧 이른 ‘They come to me now more times than I

역은 원작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번역으로 혹독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원작에서 영혜가 자기의 꿈을 동사적으로 표현한 사건 '다시 꿈을 꿴어.'를 명사적 표현 'Dreams of murder.'라고 변형시킴으로써 영혜의 들리는 목소리를 안 들리게 죽였을 뿐 아니라, 사건(event)을 대상(object)으로 전환시켜 텍스트의 결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여-향상의 재번역 패러다임에서 보면 원작의 일부를 삭제, 압축, 그리고 의미 변형시킨 *The Vegetarian*은 원작의 진실을 결여한 원작을 훼손시킨 것이 되어 재번역을 통하여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한 재번역은 첫 번째 번역텍스트에서 훼손되거나 상실된 『채식주의자』 원작의 '진실'을 드러내고 번역텍스트에서 손상된 원작의 '결'을 복원하기 위해 초기 번역을 수정, 향상시켜야 한다.

3.2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틀

해석-다양성 패러다임에서 문학은 기본적으로 읽기(reading)이며 읽기는 해석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번역의 영역에서 원작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항상 열려 있으며 원작 읽기는 따라서 텍스트의 독특한, 창의적 경험이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다(Massardier-Kenney 2015: 17).¹²⁾ 번역은 이러한 창의적 읽기 경험을 표상한 한 유형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번역가는 새로운 독특한 해석을 원작으로부터 경험하고 이를 번역하게 된다. '위대한 문학작품'의 경우 위대한 번역을 낳고 맥락을 달리함에 다르게 재해석되어 재번역이 반복되는 것이다.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틀에서 보면,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한국 독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창의적 문학 읽기 경험을 외국독자들에게도 가능하게 열어 준 원본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한 번역이지 원본보다 열등하거나 원본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 결핍된 번역이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스미스의 첫 번역 *The*

can count.'라는 영혜의 시점이 드러나면서 영혜의 시점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마사르디에-케니는 데리다(Derrida 1992)의 '문학 읽기'의 관점을 번역에 적용하여 해석-다양성 재번역 이론의 바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 읽기는 의미를 비결정적인 것으로 보는 인지 의미론의 관점과 유사하다(조의연 1996).

Vegetarian 이후,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스미스에 의해서 또는 다른 번역가에 의해서 영어로 재번역이 이루어져 출판된다면 이는 첫 번역이 서구사회의 목표 문화에 성공적으로 수용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재번역은 서구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 변화에 따라 『채식주의자』 또한 첫 번역과는 다른 창의적 재해석을 다르게 표상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틀에서 앞서 언급된 스미스의 번역의 일부를 재분석하여 보자.

다시 꿈을 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그럼 그걸 감추어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 삽이었어. 그것만은 확실해. 커다란 흙삽으로 머릴 쳐서 죽였어둔중환 올림. 금속과 머리가 부딪치던 순간의 탄성(彈性) 어둠 속에서 고꾸라지던 그림자가 생생해.

Dreams of murder.

Murderer or murdered. ...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 certainty becomes impossible. Only the violence is vivid enough to stick. A sound, the elasticity of the instant when the metal struck the victim's head ... the shadow that crimped and fell gleams cold in the darkness.

한강의 원작에서 영혜의 꿈에 대한 기억은 누가 죽였는지 불명확한 기억이 사건화 되어 간결하지만 산문적으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 스미스는 이를 시적 형상으로 해석해내고 있고 더욱 더 간결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죽인 사람이 난인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라는 이러한 의문의 연속이 스미스에 의해 ‘Murderer or murdered ...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으로 축약되어 산문적 사건이 시적 종결로 해석되고 화자의 주체는 상실되어 전지적 시점의 3인칭 화자가 말하는 듯, 시적화자의 목소리로 읽

작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심지어 원작의 ‘어둠속에서 고꾸라지던 그림자가 생생해.’의 시각적 형상이 빛(gleam)과 온도(cold)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 ‘The shadow that crimped and fell gleams cold in the darkness.’로 표현되고 있다.¹³⁾ 만일 산문적이며 구술적 문학규범을 배경으로 한 번역가가 스미스와 달리 이를 재번역한다면 살해에 대한 영혜의 몽환적 경험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간결한 스미스의 해석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첫번역과는 다른 번역이 될 것이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에 내재한 인간의 ‘폭력성’이 한강의 ‘절제된 산문체’로 표현되어 선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미스는 한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고 죽이고 그게 나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흙 삼’으로 머리를 쳐서 고꾸라지는 선정적인 폭력 상황을 ‘hazy distinctions’ ‘the metal’ ‘gleam cold’의 시적 표현으로 더욱더 응축시키고 있다.¹⁴⁾

이에 더 나아가 원작의 일부분에 대한 스미스의 탈문화적 해석은 의미의 변형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혜의 독백 가운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홉 살이었던 자신의 다리를 물어 그 개를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이고 그 개를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영혜의 서사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영혜는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흰둥이를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홉 살의 어린아이지만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을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라며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패지 않을 거

- 13) 필자들이 5억 6천만 단어로 구성된 현대 미국영어 말뭉치(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검색해 본 결과, ‘gleam’과 ‘cold’가 함께 연어로 쓰인 표현은 3회만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소설에서만 쓰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스미스의 이러한 문학적 표현은 매우 창조적 표현임을 추론할 수 있다.
- 14) 스미스는 한강의 고유한 시적 문체를 인지하면서도 그녀의 한국어의 경험은 ‘산문체’이어서 한강의 산문적 요소들을 더욱더 간결한 시적 표현으로 영어의 문학적 경험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스미스(2018: 3)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학적 언어 체험을 번역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모호함과 반복성, 산문체로 이루어진 언어에서 정확성, 간결성, 서정성이 선호되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해. 개도 함께 달려. 동네를 두 바퀴 세 바퀴, 같은 길로 돌아. 나는 꼼작 않고 문간에 서서 점점 지쳐 가는 험뎁이며 눈을 희번덕이는 흰둥이를 보고 있어. 번쩍이는 녀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난 더욱 눈의 부릅떠
나쁜 놈의 개. 나를 물어?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 punishment. The motorcycle engine starts, and Father begins to drive in a circle. The dog runs along behind. Two laps, three laps, they cricle around. Without moving a muscle I stand just inside the gate watching Whitey, eyes rolling and gasping for breath, gradually exhaust himself. Every time his gleaming eyes meet my own I glare even more fiercely.
Bad dog, you'd bite me?*

위의 번역텍스트는 원문에 드러난 인간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기의 딸의 다리를 물었다고 하여 자기가 기르던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동네를 세 바퀴씩이나 돌려 지쳐 죽이는 아버지로 표상된 인간의 폭력,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흰둥이의 눈을 마주치고도 아직도 성이 덜 풀린 아홉 살의 영혜의 독백 ‘Bad dog, you'd bite me?’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위의 번역 텍스트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문의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를 번역텍스트는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 punishment.’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 원문의 ‘부드럽다’는 ‘(달리다 죽은 개의) 고기의 맛이 부드럽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번역텍스트의 ‘mild’는 불에 그슬려서 죽이는 것보다 달리게 해서 죽이는 것이 ‘부드러운 형벌’이라는 의미로 탈바꿈되었다. 서구의 맥락에서 불에 그슬려 죽이는 것이 달리게 해서 개를 죽이는 것 보다 더 잔인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영혜의 이 독백에서 분명 ‘부드럽다’는 개를 식용하는 우리 문화에서

오래 전에 시골에서 개를 매달아 때려 그슬려 죽여 먹은 우리의 잔인한 식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스미스의 번역은 이를 은폐한 채,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딸을 물어뜯은 개를 그슬리는 것보다 달리게 해서 죽이는 것으로 의미 변형시켜 약화된 형벌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¹⁵⁾

해석-다양성 틀 안에서 흰둥이를 매달아 달리게 해서 죽이는 원작의 이야기는 부드러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분명 형벌로도 읽힐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는 스미스가 잔인한 형벌에 해석의 무게를 두고 고기의 부드러움을 별로 의미변형 시켰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해석-다양성 틀에서 보면 스미스의 이러한 읽기는 ‘창조적인’(inventive) 읽기 경험이지만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낯설게 하는 문화번역을 지향하는 번역가는 부드러운 개고기를 먹기 위해 불에 그슬리고 달리게 하는 타자의 문화를 ‘독특한’(singular) 체험으로 읽고 서구문화권의 독자들에게 낯선 타자를 경험하게 번역할 것이며 이러한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스미스와는 다른 해석의 경험이며 다양한 해석의 하나일 뿐이다.¹⁶⁾

4. 나가며

본 연구는 그간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쏟아진 다양한 비평과 번역학 연구를 재분석하기 위하여 번역에 관한 스미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미스가 밝힌 ‘다르게 실패하기’로서의 재번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다양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영혜의 꿈의 독백과 개의 죽음에 대한 영혜의 회상을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의 일부를 재해석하고 서로 다른 재번역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미스는 번역을 ‘창조적 다시쓰기’로 보며 번역을

15) 이인규(2017: 190-193)는 이를 ‘영똥한 번역’인 오역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을 더 잔인하게 드러내는 ‘정복자’로서의 ‘제국주의자 자국화 번역’으로 보고 있다.

16) 낯설의 번역, 혼종성의 번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의는 유한내(2017b) 이상빈(2018)을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문화번역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재번역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의한 것이다(유한내 2017a).

‘완성’이 아니라 ‘실패’로 표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창조적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은 원본의 문학작품을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존적이다. 훌륭한 원작은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첫 번역과는 다른, 차이 있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재번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비록 스미스가 재번역을 ‘다르게 실패하기’로 바꾸어 쓰며 ‘실패’라고 하는 용어를 반즈(Barnes)에게서 빌려왔지만, ‘완성’에 대비되는 개념을 표현한 단어이지 자신의 번역텍스트가 무엇인가 ‘결여’한 텍스트로 보지 않는다.¹⁷⁾

우리는 이 논문의 3장에서 마사르디에-케니에서 논의된 재번역의 두 가지 패러다임인 ‘결여-향상’ 그리고 ‘해석-다양성’의 두 가지 관점에 바탕을 두고 이 두 가지 틀에서 스미스의 번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틀에서 스미스의 첫 번역과는 다른 재번역이 이루어진다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논의하였다. 원문과 달리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에서 생략과 압축, 심지어 의미 변형으로 빚어진 현상을 결여라고 보는 것은 원작 문학작품의 의미는 안정적이며 진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문학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를 창의적 다시쓰기로 보는 것은 원본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전통에 따라 독특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해석을 원작과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보았다.

스미스의 영어 번역텍스트가 맨부커 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강은 세계적인 문학적 위상을 갖게 되었고 세계의 독자들이 그의 문학을 널리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The Vegetarian*이 갖는 이러한 세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가 확대되는 번역이 아니라, 탈식민주의의 문화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낯설게 번역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내 비평가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가 『채식주의자』를 재번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가 보여주는 독자-수용 중심적 번역 관은 서구의 독자들에게 낯설을 경험하게 하는 재번역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17) 물론 스미스(2018)는 첫 번역 *The Vegetarian*에 ‘실수’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수한 요소들로 인하여 *The Vegetarian*이 한강의 훌륭한 원작을 훼손한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원작에 충실한 번역임을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미승혜 (2017) 「독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논의: 『채식주의자』와 번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 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05-135.
- 스미스 데보라 (2018) 「우리가 번역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말하는 것들」, 『국제인문포럼: 평창』, <https://news.v.daum.net/v/20180122211159557?rcmd=rn>.
- 유한내 (2017a) 「재번역을 재고하다: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번역학연구』 18(1): 96-114.
- 유한내 (2017b) 「세계문학 -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나아갈 길」, 『통역과 번역』 19(2): 131-152.
- 이상빈 (2018) 「재번역 및 자가교정 분석을 통한 한국문학번역 방향 고찰하기: 서울, 1964년 겨울을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8(4): 121-146.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이형진 (2018)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19(4): 185-206.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조의연 (1996) 「의미란 무엇인가: 인지의미론과 해체주의」, 『담화와인지』 2: 117-128.
- 조의연 조숙희 (2017) 「이탈릭체의 문체적 활용: 『소년이 온다』 한영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8(5): 231-252.
- 한 강 (2007) 『채식주의자』, 서울: 창비.
- Derrida, Jacques (1992) 'This Strange Institution Called Literature,' In Derek Attridge (eds), *Acts of Liter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3-75.

- Flood, Alison (2016)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serves up victory to *The Vegetarian*,” *The Guardian*, 16 May.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6/may/16/man-booker-international-prize-serves-up-victory-to-the-vegetarian-han-kang-deborah-smith>.
-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Trans. Debora Smith, London: Portobello.
- Marssardier-Kenney, Françoise. (2015) ‘Toward a Rethinking of Re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92(1): 73-85.
- Montgomery, Charles (2014)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15 June. Available at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Abstract]

Deborah Smith's Approach to Translation and A Reanalysis of *The Vegetarian* With Reference to Two Retranslation Approaches

Cho, Euiyon · Cho, Sookee
(Dongguk University_Seoul · Shinhan University)

Since *The Vegetarian* won the International Man Booker Prize, a great deal of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nglish translated text from literary critics and Translation Studies researchers. Although it is widely known that the translator Deborah Smith takes translation as a creative rewriting, to what extent her translation is creative and in what sense it is have been barely discussed in detail. In this paper we discuss her approach to translation based on her paper (2018) in which she mentions the possibility of retranslating the original 『채식주의자』: she considers retranslation as an act of ‘failure in a different way.’ We argue that her view of retranslation as failing in a different way is based on an interpretive approach to literature.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we have reanalyzed her translation of Younghye's,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italicized monologues from the perspectives of two retranslation paradigms, focusing on one of her dreams and her recollection of how her dog was dead, both of which deal with how violent humans are. Based on Massardier-Kenny (2015)'s presentation of two paradigms of retranslation - Paradigm of Lack and Paradigm of Multiplicity - we have critically discussed some of the critical reviews which see Smith's first translation as a translation of deficiency to be improved in a later version. It was also argued that Smith's first translation is a product of her singular and inventive reading of Han Kang's original 『채식주의자』.

▶ Key Words: Deborah Smith, retranslation, *The Vegetarian*, interpretation, reading

▶ 주제어: 데보라 스미스, 재번역, 『채식주의자』, 해석, 읽기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정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번역학

조숙희

신한대학교 국제어학부 부교수

shcho@shinhan.ac.kr

관심분야: 영어교육,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